

# 연꽃마을 어린이 32명 경주나들이



신행연장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생회 3년째 초청

"똥이 재미나. 다음에 오면 또 탈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언니 오빠들과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노오란 생활복을 입고 연신 재잘거리는 다현이. 대학생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농을 즐기고 있다.

나였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만큼 가을 햇살에 살랑거리는 단풍보다 고운 웃음을 아이들에게 안겨 주어야 아이들의 얼굴에는 경주나산 아기부처님 웃음같은 해맑은 미소가 상글거렸다.

"부족하지만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도리어 힘을 얻는다"는 강성현(동국대 국악과·22)씨는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사는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부처님의 동체대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렵잖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맑은 눈망울의 구김살없는 행동을 보던 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 그리고 다운 증후군,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아들이다.

94년부터 예천 연꽃마을과 인연을 맺고 매년 3~4번의 방문을 통해 정을 쌓아 오던 불교문화대학생회와 불교도연합회원들은 방문 때마다 각박하게 따르던 아이들의 눈망울을 못 잊어 경주로 초청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3년째.

정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색다른 기쁨을 주고 싶은 욕심에서 용돈을 아껴 모으고, 모금운동, 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동분서주한 끝에 예천 연꽃마을 아이들의 경주 나들이가 시작된 것.

경쟁들의 힘으로 1박 2일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보살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



예천 연꽃마을 어린이들이 경주월드를 찾아 대학생봉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누며 캠프카리어로 사람의 불꽃을 지켰다. 이날, 새벽같이 눈을 뜬 아이들은 연신 재잘거리며 경주월드를 이리동산으로 향했다. 문어발, 바이킹, 회전목마 등 갖가지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올라탄 아이들은 합성을 내지르며 불편한 몸도, 엄마 아빠 없는 슬픔도 날려 버렸다.

불교문화대학생회 조태영회장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은데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안타깝다. 내년에는 많은 이들의 힘을 더 보태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향한 눈길을 떼지 않았다.

94년 처음 연꽃마을을 방문했을

때 연꽃 마을의 식구였던 박재성(불교학과·25)씨는 이제 불교학 생회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동생들에게 잘해주고픈 마음은 태산 같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경비 외의 사비는 절대 쓰지 않 것'을 의 원들에게 당부한다. 자칫 바라고 기대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 때문. 회원들의 아이들 사랑은 이렇게 깊었다. 넓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이 좋다 하고 휠체어를 밀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누웠다.

이들간의 경주 나들이가 아이들과 회원들의 마음에 남긴 여운은 깊다. 나들이에서 돌아간 회원들과 아이들은 편지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첨미희 기자 (mhcheon@buddhapha.com)

## 고아의 외로움 장애의 서러움 잠시 잊어버리고 즐거운 古都구경

### 이번 행사에는 정재진(불교학과·25) 김연주(불교아동학과·22) 등 15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이틀간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 아닌 나 오빠로 나섰다.

첫날 경주 월드에 도착한 아이들은 조를 나누고 장기자랑과 촌극을 함께 하며 밤이 깊어 가는 것을 잊었다. 연꽃 마을을 떠나 본격이 없는 아이들은 시간이 달아나기라도 하듯 잠을 쫓으며 만화 주제가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

## 생할속의 불교

### 나'가 있다는 생각이 굳으면 고통수룩.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된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내 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 또한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벌고 보는 것, 권력은 잡고 보는 것, 자리는 앉고 보는 것이라며 소유에 집착한다. 우리를 대부분이 그렇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나 개중에는 '나, 나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른바 무소유를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의 남다른 특징은 매사에 걸림이 적고 한결 자유로워 보인다는 점이다.

'나, 나의 것'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들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존재와 소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공공 같은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팔아서 대신 '나의 모습, 나의 명예, 권위, 재산' 따위를 사들이고 있는 셈이다.

지혜란 '본래부터 나라고 내세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란 물질과 욕심은 필경 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인연 소산의 현상계에선 실체로서의 '나'란 것이 없다고 하셨다. 누구라도 '나'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걸림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딩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엄연히 있는 것을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는 반론에 있다. 살을 꼬집으면 분명히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재산을 잃으면 괴로운 것이 많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것은 중생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이 설교하신 참되리 와는 아득히 멀다. 아니, 부처님께서도 그것은 허상이요, 공이요, 물거품이라고 하셨다.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 불자라면 먼저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보라. 자만심, 애착, 소유욕으로 꽂 찬 마음을 비워보라. 그리고 대신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보라. 빈 그릇엔 새 것이 담긴다. 텅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다.

■ 龍眼

## IMF다이어트 인기 급등

간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강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 다.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 다 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에게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 황토 흙벽돌 기계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상온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항토마을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도골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북쪽 남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봉송항토마을

## 주제가 있는 법문

### 똑같은 시간 흘러가지만 어떻게 쓰느냐 천차만별

옛날, 카시족의 어느 마을의 '바라문의 아들이 출가해서 히마라야산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천녀(天女)가 그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변해서 유혹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승은 자신에게 어느 만큼의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지, 또 언제 죽음을 맞이할 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승을 외었습니다.

시간은 많으나 나는 볼 수가 없네. 그래서 달갑지 않은 탁발을 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이 무심코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되뇌이는 동안 천녀

의 유혹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의 모습을 담은 <자타가>에 있는 이야기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살아간다는 것에서 시간의 길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기분 좋은 시간은 '아 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지없이 천천히 흐를 뿐입니다. 또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충실하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헛되게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농도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들 평소 아무런 느낌 없이 시간을 쉽게 보냅니다. 각자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은 갑자기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확연히 인식합니다. 시간이 유한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스스로 시간을 충실히 착실히 아주 중요하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때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내는 일도 아주 중요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즐거움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큰 즐거움을 결코 맛 볼 수 없으며 작은 즐거움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불행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나 어른들은 "참고 견디면 언제나 큰 행복이 돌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중국 당(唐)나라의 선사들은 말이 되어오기 전의 본래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평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도인은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사를 초월하고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자연인(自然人)'일 것입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얽힌 것을 풀고 또한 바 있으면 이루고 가 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별을 버리고 빈 그릇을 가지면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 함이 있다고 참사다. 이 함에 새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함에서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물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경쟁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빈 마음이 돼야 다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분별이 없어져야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그 동안 지나간 가을의 빛과 다들 짓고 울겨울은 다음 해의 겨울 색과 다들 짓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월 15일(수) ■ 청담대중사 29주기 추모법회=도선사는 오후 11시 효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청담대중사 29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02)993-3161~3

11월 16일(목) ■ 대구광역시 유마회 합동법회=대구광역시청 유마회는 관내 구청 불자회와 오후 7시 삼덕동 관공사에서 원명스님을 법사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053)429-2617 박영홍

11월 16일(목) ■ 조계종 교육원 승복세미나=조계종 교육원의 오후 1시 조계사 중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승가복식의 의의와 승복의 유통 및 개선방향에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2-4923.

11월 17일(금) ■ 법원사 달서분원 7인 큰스님 초청대법회=법원사 달서분원은 22일까지 7일간 정무, 인환, 일진, 실상, 설호, 보각, 자광스님을 차례로 초청, 7인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053)644-8108

11월 17일(금) ■ 영락사 관음불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도계 영락사는 오전 10시 관음불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33)541-0340

11월 18일(토) ■ 일타대중사 열반 1주기 추모제=해인사는 동국당 일타대중사 열반 1주기 추모제를 오전 10시 대적광전에서 봉행한다. (055)931-1001~2

11월 18일(토) ■ 봉림사 백교좌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을 초청해 백교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1월 19일(일) ■ 진각종 부산 밀교교리대법회=불교전각종 총금강회 부산지부는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밀교교리대법회를 봉행한다. (051)464-0668

11월 19일(일) ■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 순직 경관 위령제=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은 사내 법당에서 호국순직 경찰관 위령제를 봉행한다. (032)612-9848

11월 20일(월) ■ 수원 공소사 개원법회=수원 공소사는 오전 10시 금강선원 원장 혜거스님을 증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31)246-1001

11월 21일(화) ■ 강남구청 불심회 성지순례=강남구청 불심회는 원주 구룡사와 영월 법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구청앞 7시. (02)3463-0377 양승민.

11월 21일(화) ■ 우곡선원 참선교실=우곡선원 서울본원은 오후 8시 선방에서 한 달과정의 참선교실 입재식을 갖는다. (02)529-502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관매되고 있다. 코람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어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람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황토 흙벽돌 기계**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상온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항토마을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도골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북쪽 남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봉송항토마을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옆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드라니까"

진즉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처럼 귀하게 여겨졌던 옛날에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법으로 만든 액체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체에 20여일간 담그고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년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행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재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5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살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 3437-8282 ①